

야구

4

2019년 11월 5일 화요일

스포츠동아

'싱글A 타격왕 출신' 배지환 호주리그 질풍 코리아 합류



배지환

미국 마이너리그 싱글A 타격왕에 올랐지만 배지환(19·피츠버그 파이리츠 산하 그린스보로)에게 만족은 없다. 실전 감각을 끌어올리기 위해 겨울내 호주프로야구리그(ABL) 질풍 코리아에 합류할 예정이다.

야구계 사정에 정통한 관계자는 4일 "배지환이 질풍에 합류한다"고 전했다. 배지환은 지난해 3월 계약금 125만 달러(약 13억 원)를 받고 피츠버그에 입단했다. 데뷔 첫해 루키 리그에서 35경기에 출장해 타율 0.271, OPS(출루율+장타율) 0.711을 기록하며 가능성을 인정받았고 올해 4월부터 하위 싱글A 그린스보로 그래스호퍼스에서 뛰었다. 86경기에 출장하며 타율 0.323, OPS 0.833, 38타점, 69득점, 31도루를 기록하며 준족의 내야수로 가능성을 보였다. '사우스아틀란틱리그(SALL)' 타율 1위, 도루 4위에 올랐을 만큼 경쟁력이 있었다.

미국 현지에서도 주목도가 높다. 10월 '베이스볼아메리카'가 선정한 SALL 유망주 TOP 20에 당당히 이름을 올렸고 앞선 9월에도 'MLB파이프라인'이 발표한 유망주 랭킹 2루수 부문에서 전체 10위에 랭크됐다.

하지만 비시즌 호주에서 구슬땀을 더 흘릴 예정이다. 질풍은 ABL 첫 시즌이었던 지난해부터 배지환의 합류를 바라왔고, 피츠버그 구단 측에서도 '코어 유망주'의 실전 감각 향상을 막을 이유가 없었다. 배지환은 오는 21일 개막하는 ABL 일정 중 절반 정도를 뒤편 예정이다. **최익래 기자**

편집 | 심승수 기자 sss23@donga.com

'풍운아' 노경은, 2년 총액 11억원에 계약



돌고 돌아...롯데 품으로

무엇을 위한 1년간의 줄다리기가. 롯데는 지난해 협상에 실패했던 프리에이전트(FA) 노경은과 4일 2년 총액 11억원에 계약했다. 노경은은 2019년 소속 팀 없이 개인 훈련을 해왔다. 스포츠동아DB

작년 협상결렬 후 새 등지 못 찾아 미국 트라이아웃까지 참가하기도 성민규 단장 취임 후 합의 급물살 "다시 롯데 유니폼 입게 돼 기쁘다"

1년의 이말 끝에 결국 다시 손을 잡았다. 노경은(35)이 롯데 자이언츠와 1년 만에 프리에이전트(FA) 계약에 합의했다.

롯데는 4일 "노경은과 2년 총액 11억 원(계약금 3억 원·연봉 및 옵션 4억 원)에 계약했다"고 발표했다. 옵션의 세부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노경은은 2018시즌 종료 후 FA 자격을 얻었다. 그 해 33경기에서 9승6패, 평균자책점(ERA) 4.08을 기록하며 팀 내 도중

최다승 투수에 오르는 등 기여도가 높았다. 노경은은 생애 첫 FA 권리를 롯데 잔류로 행사하고자 했고 롯데도 노경은을 필요로 했다.

하지만 금액에서 이견이 발생했다. 길었던 협상 끝에 롯데는 23억 원을 제안했지만 보강액보다 옵션이 더 많았고, 노경은은 끝내 도장을 찍지 않았다. 롯데도 이례적으로 협상 결렬을 공식 발표했다. 타팀에서도 20인 외 보강선수를 내주면서까지 노경은 영입을 시도하지 않은 탓에 KBO리그에서 뒤편 길이 없었다. 노경은은 미국 메이저리그 진출을 위해 미국으로 건너가 트라이아웃을 진행하기도 했다.

고배를 맛 본 그는 부산 동의대에서 개인 훈련을 진행했다. 그러면서 사인 앤드 트레이드 등 이적의 길을 모색하기 위해

등분서주했지만 권한을 가진 롯데가 요구되지 않았다. 몇몇 팀에서 노경은의 영입을 타진했지만 카드가 맞지 않았다.

그러던 중 9월 초, 성민규 단장이 부임하며 관계는 전환점을 맞이했다. 성 단장은 노경은에게 먼저 연락을 취해 진심으로 노경은에게 먼저 연락을 취해 훈련하던 그에게 2군구장인 상동 훈련장 사용을 허락했다. 서로 쌓였던 감정의 골을 풀어내자 협상은 일사천리로 진행됐고 결국 4일, 양 측은 마침내 계약에 합의했다. 노경은은 "다시 롯데 유니폼을 입게 돼 진심으로 기쁘다. 팬들이 다시 즐겁게 야구장을 찾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소감을 밝혔다. 그는 11월 말 개막하는 호주프로야구 리그(ABL) 소속 질풍 코리아에서 실전 감각을 되살린 뒤 스프링캠프를 소화할 계

획이다.

롯데는 2019시즌 팀 ERA 4.83으로 최하위였다. 선발 ERA로 범위를 좁혀도 5.03으로 압도적 최하위였다. 토종 에이스 역할을 해줘야 할 자원이 갑작스럽게 빠진 공백을 메우지 못했다. 1년간 실전을 소화하지 못한 노경은이 당장 리그를 호령할 만큼의 성적을 내긴 어려울 수 있다. 하지만 그가 가진 경험과 절실함이라면 롯데 마운드 재건에 어느 정도 역할이 가능하다는 게 구단의 판단이다. 롯데는 "노경은은 평소 몸 관리를 매우 철저히 하며 훈련을 게을리 하지 않았고, 지난 1년간 루틴에 맞춰 실전투구를 해 경기 감각을 유지했다"고 설명했다. 돌고 돌아 다시 동행. 롯데와 노경은의 2020년 행보에 시선이 쏠린다. **최익래 기자 ing17@donga.com**

SK·KIA도 조용...벌써 얼어붙은 FA시장

염경엽 감독 "FA보다 트레이드 주력" KIA·한화도 내부FA 잔류에만 총력

스토브리그가 개막됐지만 프리에이전트(FA) 시장에는 찬바람이 뿜겨 불고 있다. 든든한 모기업이 있는 구단들도 저마다 육성세에 초점을 맞추며 불참을 선언하고 있다.

올 시즌 가을야구에서 큰 실패를 경험한 SK 와이번스는 사실상 FA시장에 참전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다. 염경엽 감독이

취재진에게 이를 공식화했다. "FA보다는 트레이드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는 염 감독이 단장시절부터 유지해온 방향이었다. 지난해 시즌 종료 후 고종욱(키움 히어로즈→SK 와이번스), 김동엽(SK 와이번스→삼성 라이온즈), 이지영(삼성 라이온즈→키움 히어로즈)의 삼각트레이드가 그 성과물이었다.

SK는 내야 센터라인에 약점이 뚜렷한 팀이다. 시즌 중반부터 LG 트윈스에서 주전 유격수로 활약한 오지환의 영입 가능성이 제기됐던 이유다. 그러나 LG 역시 오지

환의 잔류 계약에 주력하고 있다. LG는 이른 장타자 보강이 필요한 팀이지만 최태영을 꼽히는 전준우(롯데 자이언츠)를 잡기에는 외야·지명타자 포지션이 포화상태다. 오히려 2루수 안치홍(KIA 타이거즈)이 전력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카드다.

그러나 KIA는 안치홍과 김선빈과 잔류 계약의사를 분명히 했다. 훈련타자 보강이 필요한 팀이지만 보강선수를 감내하면서 뛰도록 자원을 보이지 않는다. 한화 이글스 역시 정우람, 김태균 등 4명의 내부 FA 계약이 우선 목표다. 최근 FA시장에서 보이지 않는 큰 손 역할을 한 삼성 라이온즈도 전력보강이 필요하지만 적극적으로 뛰어들지 않고 있다. 가장 절실한 대형 선발

투수 FA가 시장에 없다.

1999시즌 종료 후부터 시작된 FA시장에서 단 한명도 타 팀으로 이적하지 않은 해는 2008년 단 한 해 뿐이었다(2011년은 일본에서 복귀한 이범호가 KIA와 계약). 지난해는 14건의 FA 계약이 있었지만 타 팀 이적은 양의지(두산 베어스→NC 다이노스) 한 명이었다.

FA 시장이 얼어붙었지만 포수 이지영(키움 히어로즈)은 롯데 입장에서 분명 꼭 필요한 카드다. 이 밖에 팀 주축 전력 역할을 해온 FA선수들이 원 소속팀 잔류계약이 결정되면 연쇄적으로 팀 이동이 일어날 가능성도 남아있다. **이경호 기자 rush@donga.com**

sports2i

스포츠투아이와 함께하는 스포츠기록실

경기 결과								
남자프로농구 <4일>								
*2019-2020 현대모비스 KBL 팀순위								
순위	팀	경기	승	패	승률	승차		
1	전지연	10	8	2	0.800	0 4승		
2	SK	10	7	3	0.700	1 1패		
3	DB	10	7	3	0.700	1 1패		
4	KCC	12	8	4	0.667	1 1승		
5	KT	10	5	5	0.500	3 1패		
6	인삼공사	11	5	6	0.455	3.5 1승		
7	삼성	10	4	6	0.400	4 2승		
8	현대모비스	10	3	7	0.300	5 4패		
9	오리온	11	3	8	0.273	5.5 2패		
10	LG	12	3	9	0.250	6 1패		
*부문별 중간순위								
평균 득점		평균 도움		평균 리바운드				
선수	팀	득점	선수	팀	도움	선수	팀	리바운드
① 해리스	LG	29.3	① 허훈	KT	6.4	① 라건아	모비스	14.9
② 라건아	모비스	21.7	② 이정현	KCC	6.2	② 라렌	LG	11.5
③ 워너	SK	21.7	③ 김시래	LG	6.1	③ 워너	SK	10.3
④ 라렌	LG	21.7	④ 최준용	SK	4.8	④ 할로웨이	전지연	10.2
⑤ 마에라스	삼성	19.7	⑤ 김선형	SK	4.7	⑤ 윌리엄스	KCC	9.7

여자프로농구 <4일>						
*2019-2020 하나원큐 WKBL 팀순위						
순위	팀	경기	승	패	승률	승차
1	우리은행	5	4	1	0.800	0 4승
2	KB스타즈	4	3	1	0.750	0.5 1패
3	삼성생명	5	3	2	0.600	1 1패
4	KEB하나	4	2	2	0.500	1.5 1승
5	신한은행	5	2	3	0.400	2 1승
6	BNK 썬	5	0	5	0.000	4 5패

해외축구 <4일>						
*프리미어리그						
팀	경기수	승	점	승	패	무
1 리버풀	11	31	10	0	1	① 바디
2 맨체스터시티	11	25	8	2	1	② 아케로
3 레스터시티	11	23	7	2	2	② 아브라함
4 첼시	11	23	7	2	2	② 아우베라영
5 아스널	11	17	4	2	5	② 스티븐
6 셰필드Utd.	11	16	4	3	4	② 마네
7 본머스	11	16	4	3	4	② 케인
8 브라이튼	11	15	4	4	3	② 푸키
9 크리스탈팰리스	11	15	4	4	3	② 레쉬포드
10 맨체스터Utd.	11	13	3	4	4	② 실라
11 토트넘	11	13	3	4	4	② 월슨
12 울버햄튼	11	13	2	2	7	② 마운트
13 웨스트햄	11	13	3	4	4	② 모페
14 번리	11	12	3	5	3	② 반스
15 뉴캐슬	11	12	3	5	3	② 베르나르두
16 애스턴빌라	11	11	3	6	2	② 예이유
17 에버턴	11	11	3	6	2	② 우드
18 사우스햄튼	11	8	2	7	2	② 웨슬리
19 노리치시티	11	7	2	8	1	② 잉스
20 왓포드	11	5	0	6	5	② 폴리시

*프리미어리그 경기결과			
팀	경기	결과	비고
레스터시티	2 - 0	크리스탈팰리스	에버턴 1 - 1 토트넘

*분데스리가 경기결과			
팀	경기	결과	비고
살케04	3 - 2	아우크스부르크	뒤셀도르프 2 - 0 쾰른

*프리메이리가 경기결과			
팀	경기	결과	비고
헤타페	1 - 0	셀타비고	레알소시에다드 2 - 1 그라나다
에이바르	2 - 1	레가네스	오사수나 4 - 2 알라베스
바야돌리드	3 - 0	마요르카	비야레알 0 - 0 빌바오

프로골프 <4일>						
*PGA TOP10						
순위	선수	점수	타수	타율	타수	타율
1	토드(미국)	-24	③ 히스(미국)	-20	③ 레비오(미국)	-18
2	와이즈(미국)	-18	③ 게이(미국)	-18	③ 세폴라(미국)	-18
3	고메즈(아르헨티나)	-17	③ 현(캐나다)	-15	③ 로치(미국)	-15
4	아미(미국)	-15	③ 배상민(한국)	-2	③ 이경훈(한국)	-2

NBA <4일>						
*경기결과						
팀	점수	타수	타율	타수	타율	타수
달라스	131-111	클리블랜드	인디애나	108-95	시카고	
마이애미	129-100	휴스턴	세크라멘토	113-92	뉴욕	
LAL	103-96	샌안토니오	LAC	105-94	유타	

NFL <4일>						
*경기결과						
팀	점수	타수	타율	타수	타율	타수
휴스턴	26-3	잭슨빌	버펄로	24-9	워싱턴	캔자시티
마이애미	26-18	뉴욕	필라델피아	22-14	시카고	피츠버그
캐롤라이나	30-20	테네시	오클랜드	31-24	디트로이트	시애틀
덴버	24-19	클리블랜드	LAC	26-11	그린베이	볼티모어

아마추어 경기결과 <4일>						
*필살						
순위	선수	타수	타율	타수	타율	타수
1	김지현(한국)	1000m	남자	결승전=① 황대현(한국), ② 안현수(러시아), (동) 박지현(한국)		
2	김지현(한국)	5000m	계주	남자	결승전=① 러시아, (은) 한국, ③ 캐나다	
3	김지현(한국)	3000m	계주	여자	결승전=① 중국, (은) 한국, ③ 캐나다	

경기 예고						
남자프로농구 <5일>						
*2019-2020 현대모비스 KBL						
순위	팀	경기	승	패	승률	승차
1	삼성	11	8	3	0.727	1 1승
2	SK	11	7	4	0.636	1 1승

프로배구 <5일>						
*도드람 2019-2020 V리그 (여자부)						
순위	팀	경기	승	패	승률	승차
1	도로공사	11	8	3	0.727	1 1승
2	인삼공사	11	7	4	0.636	1 1승

*도드람 2019-2020 V리그 (남자부)						
순위	팀	경기	승	패	승률	승차
1	OK저축은행	11	8	3	0.727	1 1승
2	현대캐피탈	11	7	4	0.636	1 1승

아마추어 경기예고 <5일>						
*축구						
순위	팀	경기	승	패	승률	승차
1	한국여자축구연맹전(화천, 오전9시30분)					
2	테니스					
3	배드민턴					

오늘의 토트 <5일>						
*농구토트 매치 48회차 대상경기 및 게임일정						
경기	경기일시	홈팀	vs	원정팀	경기장소	
1	11.05 (화) 19:00	서울삼성	vs	서울SK	잠실실내체육관	